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

1. 고린도전서 3장 21절 - 4장 7절을 읽고, 다음 3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1) 인간의 본성적 상태

(2)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기이해

(3) 새로운 자기이해에 이르는 길

2.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본래의 위치에서 이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높은 자존감 때문입니까? (12-16, 48페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말해 봅시다.

3.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교만’이라는 단어 ‘푸시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4가지로 정리해 봅시다(19-20페이지).

4. 교만의 첫 번째 의미는 ‘공허함’입니다. 팀 켈러가 말하는 공허함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20-22페이지). 그리고 당신은 그 공허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5. 두 번째 교만의 의미는 ‘고통’입니다. 팀 켈러가 설명하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22-24페이지) 당신은 인정받고 싶은 교만으로 인해 고통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6. 세 번째 의미는, ‘분주함’입니다. 인간의 본성(교만)은 텅 빈 자아를 채우기 위해 자신에게 주의를 끄는 일(비교와 자랑)로 분주합니다(24-28페이지).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 해 봅시다.

7. 네 번째는 ‘나약함’입니다. 한껏 부풀어 오른 풍선마냥 우쭐해지고 스스로 높아진 자아는, 그러나 늘 의기소침해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29-33페이지). 이러한 자아의 허약함에 대해 자신의 이야기를 해 봅시다.

8.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는 모습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상담가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스스로 정하고, 그렇게 되라’고 조언합니다(36-37페이지). 이러한 대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7-40페이지)

(1)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삶은 어떤가요?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2) 스스로가 세운 기준을 달성해내는 삶은 어떤가요? 과연 1번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 봅시다.

(3) 위의 두 가지 삶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9. 바울의 정체성은 이 모든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타인의 판단이나 스스로의 기준으로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습니다(43페이지).

(1) 바울은 스스로의 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손상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2) 자신의 업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그것으로 자신을 규정하거나 우쭐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10. 아래의 글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45페이지).

복음을 통해 진정으로 겸손해 진 사람은,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충일합니다.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자신을 더 생각하거나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한다는 데 있습니다. 복음적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사물을 자신과 관련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내 모습이 좋게 보일까? 지금 내가 여기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적 겸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경험과 대화를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 짓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칩니다.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자유를 누립니다. 자기를 의식하지 않음으로써 누리는 복된 평안이 있습니다.

11. 복음적 겸손에 대해 정의해 봅시다(49-50페이지). 여러분이 꿈꾸는,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12.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복된 자유에 이르렀습니까? (53-59페이지)

13.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세상이 요구하는 정체성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60-62페이지) 오늘,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14. 이 책의 내용과 인용된 성경말씀은 여러분을 어떻게 격려하고 도전하였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참고구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8:1)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막 1:11)

“(23)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시139:23-24)

“(3)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고전4:3-4)